

이데일리

장하성 “中과 항공편 증편 논의...한중 신속통로 중소기업 적용 확대”

기사입력 2020-05-25 15:34 최종수정 2020-05-26 06:31

- 장하성 주중대사 특파원단 간담회
-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다른 국가도 관심 많아"
- "일반 항공편 입국하는 중소기업 사례 만들어야"
- "中전례없는 부양책 발표...韓기업 연관성 분석"



제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1일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415 총선 투표 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장하성 주중국 한국대사가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을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에 대해 중국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25일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3일 통화를 하고, 한중 신속통로를 상당히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했다”며 “이미 1000명이 넘는 기업인이 (한중 신속통로를) 이용했고, 유럽 대사들도 자주 질문해오는 등 다른 나라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이용하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방역 절차를 거친 한국 기업인은 14일간 시설 격리 없이 중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17~19일 신속통로를 활용해 중국을 다녀왔다.

장 대사는 “시행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다만 “대기업이 전세기를 이용해 협력업체 인원을 데리고 와서 혜택을 본 경우도 있으나 전세기가 아닌 일반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수는 굉장히 적다”며 “이는 한중 간에 항공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중소기업 사례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 항공편수를 한 국적사 당 1회 증편하는 방안을 (중국 당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초기 반응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중 신속통로 해당 지역이 현재 10개 도시로 되어 있지만, 항공편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어 지역을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생활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베이징도 유치원을 포함해 일부 학년이 개학을 시작했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단계 접어들고 있다”며 “양회가 끝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또한 “중국이 양회에서 전례가 없는 9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그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쓰겠다고 했다”며 “각 지역 총영사와 협의해서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고, 우리 기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재정정책이 1년이 아니라 앞으로 7개월치라고 보면 큰 규모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진나해에도 ‘메이드인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포차이나’를 언급했듯이 중국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48030>
